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뭐 바로 하죠. 그, 인터뷰 할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 뭐지? 먼저 고지 사항을 알려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해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 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학생 전에도 다른 학생이 했었거든요?

네.

한 시간까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어, 그러면, 어, 첫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긴 한데… 대학교 1학년이 거의 끝나가죠 이제?

네.

어, 그러면 이번 학기를 보내오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나요?

어, 아뇨,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좌, 이번 학기 들으면서 뭐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배운게 없다 이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배운 거는 많은데 행동 같은 부분에서는 예전이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운게 있으면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신입생 캡스톤 강좌 있죠?

네.

이 강좌가 다른 강좌랑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라 하면은?

뭐, 아무거나 느낀거. 아, 이 캡스톤 강좌는 다른 강좌랑 비교해 봤을 때, 어, 이건 이렇게 진행하네, 이건 다르게 하네, 뭐 이런 거요?

일단은, 그, 실제로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디자인 해서 인제 그걸 직접 만드는 거가 다른 거와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예? 다시 한 번 말해주시겠습니까?

예. 온라인이어서 다른 수업이 인제 실습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예.

저가 보기에는 캡스톤은 실제로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음, 역시 직접 참여하는 게 다른 강좌랑 다르다.

네.

근데 그거는 인제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에, 온라인이었으면 다른 과는 진행을 안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아, 그냥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처음 접한 거이기도 해서, 많이 어려워 보였고 일단은, 수업 자체를 처음부터 영어로 진행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영어로 된 영상도 있기도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하는 거기도 하고, 영어라서 또 어려웠기도 했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강좌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학기도 그렇지만은?

네.

그러면은 그 인상이 바뀌었나요? 어렵다는 인상이?

살짝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조금 덜 해졌다. 이 강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접근 방법에 어떻게 평가하나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고, 진행하고, 그런 접근 방법이요.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해야하나?

아.

이제 처음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쉽게 생각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찾는거는 어려웠나요 혹시?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음. 그러면 프로젝트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원래 처음에는 그 사람 인제 손이나 그런 거 쓰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나 아니면은 음성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려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아예 방향을 변경해서 CCTV로 녹화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바꾸게 했어요.

아, 그럼 그 주제를 딱히 떠오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 아뇨 그냥 컴퓨터 하다가 그냥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서, 이거를 좀 내가 편한 자세로 컴퓨터를 조종할 순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엔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제가, CCTV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CCTV로 녹화도 하면서 인제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만들려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건 어려웠나요?

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드는 건요?

아아, 설계라는게 디자인 그냥 내가 디자인 해본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에요?

그쵸그쵸.

그거는 그냥 중간 정도요.

중간 정도로, 설계하는 건 중간정도고 실제로 만드는게 어려웠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거 만들고 계시나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든 거만 생각해서, 본인 지금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지금?

어, 솔직히 만족은 못하죠 내가 원했던 걸 못 만들기도 했고 하니깐.

아, 근데 주제는 바꿨으니까 그 다음 주제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주제도, 백퍼센트 만족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몇 점 주고 싶어요? 본인한테?

6에서 7점 정도.

6에서 7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프로젝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까요?

음. 부족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걸 못 만든 거?

아, 이건 아까 전 처럼 주제가 바뀐 것에 대한 그것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건 가요 혹시?

네, 그것도 있고. 이게 만들면서도 이제 머릿속으론 이걸 하고 싶은데,

네.

그 거를 못해가지고, 뺀 경우, 그것도 좀 부족하다 느꼈어요.

뭐 그래도 1학년이니까, 너무 그렇게 그 뭐 못하는게 많은 게 1학년이에요 솔직히 저도 지금 뭐 못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뭐 막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자기한테 그 조금 기준이 높아가지고 엄격한 것 같네요, 본인이.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게 본인 스타일이고, 또 본인의 본인한테 아주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거니까.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그러면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어, 바꾸- 주제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바꾸고 난 후는 바꾸기 전보다는 진행이 잘 됐겠죠?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예스를 하고, 본인이 이 강좌의 교수라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어, 일단은, 수업 도중에 그 한 번 직접 교수님이 한 번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작동시키던가?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싶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시연 영상- 아니 시연하는 거를 직접 보고싶다?

네.

음, 그러면은 뭐, 강의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계속 영상으로 진행 되다-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짜고 그걸 디자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들라고 디자인 한걸 자기가 설계를 해라 이렇게 진행됐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직접 만져보고 무엇이 현재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좀 하고싶은 그런 건가요?

네, 인제 뭐가 가능하고 인제 그런걸 좀 이제 전 수업 같은 것들에서 좀 이제 보고 했으면 좀 더 편했- 내가 디자인 하는 데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음, 알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쓰셨죠 아마?

네.

그, 써보면은,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라즈베리 파이?

아우, 그 마음에 든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 아니 애초에 그냥 그런 걸 생각할 그런게 없었어요.

아, 아예 그냥 몰랐으니깐?

네.

음.

다른걸 써본 것, 아두이노? 그런걸 써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당장 답은 못하겠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랑, 그 두 개로, 프로젝트 두 개를, 프로젝트 두 개를, 한 학기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혹시?

한 학기에 하나요?

한 학기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두 개를 써서 프로젝트 두 개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뇨,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는 배우기 어려웠나요?

어, 배우, 네, 배우기 어려웠어요.

음, 어떤 점에서 어려웠죠 보통?

어, 일단, 제일 처음 접하기도 하다 보고, 보니까.

예.

이거를, 아, 어떻게, 다가가야 될 지도 맨 처음엔 막막했고요.

예.

이제, 막상 다가간다 해도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

음, 그랬었어요.

음. 그러면은 사용하는데는 어려웠나요? 사용하는 거 직접?

네, 직접 사용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엔.

으흠. 그러면은, 그, 툴, 그, 라즈베리 파이 자체도, 그, 사용할 때, 그, 본인한테 모르니까 조금 벽처럼 다가왔나요? 막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막 그랬나요?

네, 되게 큰 벽처럼 다가왔어요.

아, 그러면은 본인 같았으면 뭐 이런 것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라인이라던가 튜토리얼이라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아셨나요?

아니요,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아, 그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서 뭐 프로그래밍 해 봤어요? 직접?

어…

이 강좌 들으면서.

조금조금씩은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거 보면서 따라도 해 보고.

예.

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 거를 어, 직접 코딩해 보면서, 뭐, 배웠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봤을 때, 그, 코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혹시?

네.

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 까요?

뭐, 인제 그거를 복사해서 유, 네이버에 쳐서

예

확인을 하고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으면은 이제 댓글을 달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나요 하고 답-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아, 열심히 했네요. 그, 답을, 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어,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웠나요?

배웠… 다곤 못하겠어- 그냥 라즈베리 파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인제, 그런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코드만 썼지, 뭐 다- 뭐, 배운 것 같지는 않다.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계산 같은 거는 했나요? 혹시?

수학 계산이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수학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아,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뇨,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어려운, 어렵다고,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하다 보면은, 하다가 까- 오류가 인제 발생하게 되면은 어디서 오류났는지도 찾아야 되고.

예.

그런거에서 이제 좀 머리 아프기도 하고.

예.

또,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화면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면.

아.

이제 거기서도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할 때, 옆에서 이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틀릴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면 돼~ 이런 조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네.

음. 그러면은, 그, 근데 영어는 힘드시죠?

영어는 조금 어렵죠.

(한숨) 그러면은 뭐, 가끔, 아 이럴 때 선배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죠?

네.

가서, 가서, 한국인이니까 부담없이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그, 이게 보통 후배랑 선배랑 만나잖아요? 학기 시작이나 학년 시작이나?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안되고 하니까 참. 코로나가 참, 계획도 망치고 사람들, 그래요 그죠? 흐흐. 자, 그러면은 장래에 혹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요?

네.

아, 그래도 그건 있네요. 그, 하고싶어하는 그런건 있네요?

네.

뭐, 그러면 계기라도 있나요 혹시? 계기?

계기는, 일단은, 중학생때인가? 그, 이제, 친구가, 플래시라는 걸로.

예.

자기가 약간 2D같은 게임 같은 걸 만드는 걸 봤는데 되게 신기해가지고 인제 그거 뭐냐고 물어봐서 걔 설명을 듣고, 되게 재밌어보여서 이제 그때부터.

예.

조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무래도 컴퓨터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보다 조금씩 조금씩 잘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모든 면에서? 걔가 언제는 한 번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무슨 서버를 구축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그 엄청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것도 하나 포함이 되긴 되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걔는 공익도 하면서 막, 그, 공익하는 회사에다가 무슨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갔거든요? 허허. 그래가지고, 그 공익 회사에서도 좀, 남아서 같이 일 할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기가 된 게 좀 비슷해서 얘기는 해 봤습니다. 어, 다음은. 어, 아. 개인 프로젝트죠 개인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해보고 싶진 않나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어, 무슨 이유에서 해보고 싶을 까요?

일단은, 내가- 혼자 하는 것 보다 여럿이 하는게 좀 더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되고.

예.

의견도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하면 더 좋은 의견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친구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룹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 그럼 정보 수집도 되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좀 늘어나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룹에 몇 명 정도 있으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네명이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세네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프로젝트이긴 했는데,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거를 혹시 타인과 의논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과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군요, 그 프로젝트 하면서?

네.

음. 그러면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그거죠. 안 친하니까.

음.

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예.

무작정 가서 카카오- 카톡이나 그런, 연락매체로 연락하는게 좀 꺼려지기도 했고.

예.

선뜻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예.

그랬던게 크죠.

음, 그- 그러면은 그- 약간 조금 그- 대화에 막, 그- 막 나서서 그러고 막 참여하고 그러시는 타입은 아니신가 보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어, 그르, 그러면은 제가, 그-, 제가 지금, 뭐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뭐 나중에 뭐 궁금한게 있으면 한 번 저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아, 네.

제가 뭐, 얼마나 보탬이 될런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제가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애요.

아, 감사합니다.

에. 어,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가 아니고 질문인데. 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나요?

제일…

컸던 문제.

디자인 한 거를.

예.

그게 인제, 직접 만들 때, 어, 그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 지? 처음 시작이 문제였어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게 문제였다.

네.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첫번째 그, 제일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냥 계속 인터넷 찾아봤죠.

아, 계속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어… 그래서 뭐 잘 됐나요 혹시?

네.

음.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막 에러나고 그러면은.

막막했죠 그냥.

막막했죠- 막막했어요? 어- 그러면은 뭐 프로젝트 막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자주 하죠.

자주 해요?

때려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그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뭐, 해결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됐나요?

음, 일단 가장 큰 게 시험이니까.

예.

시험 범위에 들어- 성적에 들어가니까 해야, 싫어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제일 크고.

예.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자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음, 약간 그- 의무감이 있는 거네요?

네.

음. 그러면은 뭐 이 강의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이 프로젝트가?

네.

어- 왜 그렇게 생각했을 까요?

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건 이제 그냥, 모르니까. 이거 라즈베리 파이란 걸. 제가 모르고, 처음 해보기도 하니까.

예.

정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던 것 같애요.

음, 결국 모르는 게 제일 크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일했으면은, 좀 더- 해결방법이 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이 좀 더 잘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음, 그러면은, 그룹으로 하면은, 다른 그룹원들이랑 본인의 생각을 쉽게 나눴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룹 프로젝트였다 치면은.

네.

다른, 다른 그룹원들 있죠?

네.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쉽게 나눴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 쉽게 나누지는 못-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 모르겠다-라고 하심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룹이 아니라, 다른, 아예 다른 그룹이요?

아뇨, 같은 그룹이죠 같은 그룹.

같은 그룹원 내에서요?

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룹원이니까, 그룹원에 속하잖아요 한 그룹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다른 그룹원이라는 소리죠.

아.

그러니까 같은 팀원. 그러니까 같은 팀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쉽게 얘기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 쉽겐 아니어도 얘기는 했을 것 같애요.

어, 쉽게- 얘기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본인 자체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아뇨, 그렇게 잘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음, 어째서죠? 왜 그럴 까요?

음- 그냥 그렇게 느낀다고 해야되나?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사과가 나무에서 백 번 떨어져서 사과는 나무에서 백 번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있으면은, 사과는 당연히, 뭐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진다, 뭐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박힌건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미 판단을 그렇게 해버린 건가. 뭐, 그런가요?

고정관념- 인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작은 성공이라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상담할 때. 그러니까, 성공한 그런 기억을 조금 늘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음.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저도 지금은 뭐,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뭐, 겨우 여기 들어왔거든요? 겨우는 아니고, 뭐 늙어서 들어왔는데, 저도 뭐 맨 처음에 대학교도 갔다가 또 중퇴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했다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도 완전 좀 그랬어요 솔직히. 이룬게 없고, 다른 애들은 막 대학교 가서 잘 하고 있고 하니깐. 그래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글이라도 써 봤는데, 그래서 뭐 소설이라도 좀 써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음.

출판이라기 보다는 인터넷 소설 해가지고 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선인세로 삼백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좋은 성공? 그나마 성공한 기억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살면서 작가님이라고 들려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에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작은 성공이라도 한 번, 경험을 해 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이거는 뭐. 그냥 뭐 상담사라기보단,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 사람이라기 보단 그냥 제 본인이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 어디까지 했지? 아 예. 그러면 본인 생각에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전하는 건 혹시 좋아해요?

살짝?

어, 살짝이라 함은?

약간, 좀, 약- 어 그렇게 막 모든 거에 도전하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어느정도 이걸 해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도전하는 거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큰 것에 도전하는 걸, 아, 그 말이- 그 말인 즉슨, 리스크가 적은 걸 선호한다 그 말이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전하는 게 본인 개발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뭐,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프로젝트가 아닌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본인 스스로를?

예.

뭐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본인이?

아뇨, 그냥 어중간한 사람?

음. 어, 그러면은 그, 성공을 방해한 게 뭐가 있을 까요?

어, 성공을 방해한… 어, 방해라면 일단 두려, 두려움?

두려움?

네.

음, 무엇이 두려웠나요?

성공하는거에 대한 두려움이랑, 이거를 실패하거나 에러가 났을 때, 그런 두려움도 좀, 방해 요소나 그런 거죠.

음, 어… 두려움이 성공을 방해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0점 만점으로, 이 강좌에서 본인 성취의 정도를 매기면 어떻게 될 까요?

5에서 6점이요.

5에서 6점.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 졌나요?

어- 아뇨, 잘, 그렇게 잘 따라가 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방해했을까요?

음- 뭐 아까랑 똑같이 두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두려움은… 뭐라고 해야되나. 두려움이 방해를 한 거, 두려움은 조금 지체를 시키는 것 같지 방해는 조금 약간 프로젝트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아뇨.

어,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 일단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했던, 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도 많았고, 이게 완전히 독창적인 생-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봐와가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혹시 자신을 창의적이지 않게 방해하는 거라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창의적이지 않다?

어- …… 도전하지 않는게 제일 큰 것 같죠?

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안전한 도전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창의적이 되려면은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해야할까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거. 어, 그러면은, 혹시 몽상하는 건 좋아해요? 몽상? 망상이라던가 몽상이라던가.

망상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망상은 조금 터무니없긴 한데, 몽상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에 약간 기반을 둔 그런 몽상?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창의적인 것에 조금 이어지는 건데, 막 예를 들어서, 막 날아다니는 막 그, 뭔가를 만든다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 주제는 뭐가 될 까요? 몽상의 주제.

아, 주제는…

뭐, 주로 생각하는 게 있나요?

어… 이게, 말할라니까 기억이 안나갖고, 그, 편의, 편의성?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아, 본인에게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엄청 편할 텐데. 그정-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쪽으로.

음, 뭐 이리와 하면 이리 와 주고, 저리가 하면 저리 가 주고, 이거 갖다줘 하면 갖다 주고, 그런거요?

어,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학교 생활에 영향을 끼치나요 몽상 같은 게?

아이디어 짤 때는 조금 도움이 되요.

아이디어 짤 때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몽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중요하다고 까지는 못 보겠는데요, 그래도 있으면 좋은?

있으면 좋은?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뭐 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올, 해볼 생각이 있나요? 혹시? 한 번 해 봤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 이 강의 시작하기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라면은 아마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에요.

음, 알겠습니다. 뭐든 한 번은 해 봐야지 견적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뭐 본인도 이번 프로젝트 해 보면서, 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설계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야겠고, 뭐 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되겠고, 뭐는 하면 안되겠고 이런게 조금 정- 머릿속으로 뭐, 완전 문서화 되진 않았더라도 조금, 개념은 지금 갑- 잡혀있는 상태네요?

네.

아, 그건 잘 됐네요. … 뭐, 더 하실 말씀 없었나요 방금?

예, 뭐 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좀 생겼습니까?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조금 더 생긴 거네요?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네. 그쵸.

그러면은, 왜 그렇게 느껴- 왜 그렇게 바꼈을까요?

어, 아까 그거 뭐냐, 뭐 오류나 발생했을 때, 그런 물어봤거나 질문했을 때, 대답이 들어서 인제 성- 해결했을 그런 것도 있어서 인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의향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애요.

근데 그거는, 학생은 아니고 인터넷이죠?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 것 같나요?

어, 네 조금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느끼신 것 같네요. 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까?

에 창의적으로 만든 거 도움을 준 것 같애요.

그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인제,

아까는- 예.

다른 학생들 의견 발표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예.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도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본인의 창의적인 그 능력을 조금, 그- 개화시켜주는 그런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혹시?

네.

음, 그러면은 자주, 그- 다른 사람들 하고, 그- 의견을 나누면 좋겠네요. 뭐, 근데- 하실 건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결국 하느냐 안하느냔데, 뭐 본인 그거니까.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 수업으로 진행됐죠? 이 강의는.

혼합이라 해도 한 번 밖에 안해서.

아, 한 번 밖에 안했나요?

네.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네요.

교수님 다리 다치셨다 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네.

한 번 해서.

그거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어, 그냥, 어, 답답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었어요.

음, 답답한 거는 뭐고 편한 거는 뭐였을까요?

답답한 거는 인제, 실제로 만나서 뭘 제대로 질문 못한다는 것도 크고.

예.

이제,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죠.

음- 편한거는-

편한거, 편한거는 그냥 일어나서 대충 씻고 그냥 하는 그런 편안함?

그거는 저도 지금-

컴퓨터만-

예,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깐. 그거는 저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늦잠을 조금만 더 늦게 자도 되는?

네.

조금 더 늦게까지 딴 짓을 해도 되는?

네, 편안하죠.

헤헤, 그러면은,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성공?

영향을 좋게 미칠 수도 있고, 나쁘게 미칠 수도 있죠.

좋게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온라인 코스를 해서 본인의 성공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네.

어, 왜 그럴 까요?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을 해보는 거니까, 이제 그 이후로 혹시라도 할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대충 감이 잡히고 하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한 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혼합수업 딱 한 번 참여했다고 했죠?

네.

그 때는 오프라인에 참여했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했나요?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었어요.

아, 오프라인으로?

그러면은,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딱히, 크- 사실 별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그래도 처음 간 거- 가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온라인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하하하, 나가기가 귀찮다고 해야되나?

음.

그냥 뭐 새롭다 신기하다 이런 느낌 보다는, 그냥 처음-

귀찮다?

처음 나가기는 귀찮다, 그 다음에는 똑같이 뭐 평범한 수업이다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일상이 된 거네요, 온라인이?

네 일상이 되버려서.

쯧쯧.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수업 자체는 참여를 하셨는데, 그 어떤 것 같에요 혼합수업은?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온- 오프라인으로 간 사람도 결국 줌에 접속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것 같애요?

그, 그렇게 줌으로 어차피 들어와서 할 거면은 굳이 오프라인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 말고는 뭐 따로 느낀 점은 없으신가요 혹시?

예, 따로 느낀 거는 없었어요.

어, 알겠습니다. 어-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

아뇨, 딱히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어- 인터뷰 끝나니까 어때요?

그냥 질문이 좀 어렵다-고 해야되나?

질문이-

생각이 들기도-

네, 그렇죠. 근데 또 시시한 질문을 하면은 연구에 쓸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또 질문이 그 좀 괴롭히고 해서 조금 본인 안에 있는 걸 조금 뜯어내야지 그래야지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질문도 하고, 하면서 제 생각도 조금 얘기해 드렸고 그렇긴 한데, 뭐 제가 뭐 꼰대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이게 또 나- 아는 사람은 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해드리는 거라서, 뭐, 모쪼록 뭐, 기분 안 상했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뭐 잘못했다던가 뭐, 그러면은.

아뇨.

맘 상해하면 아니, 안되니까.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닙니다. 뭐 바쁘신가요 혹시?

어, 저 따른 그것도 해야되긴 해가지고.

그렇죠? 예, 계속 잡아둘 순 없구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내- 끝내- 뭐야, 인터뷰는 이제 끝났구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